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느헤미야서 강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느헤미야 13:1~31)

이종윤 원로목사

I. 실패하고도 일어서서 일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바람을 일으키고 인기나 끌려고 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받은 사명을 따라 일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그는 용두사미식 지도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다.

두 번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

- ① 아다사스다왕 20년 - 32년(주전 445~433년, 느 5:14)
- ② 아다사스다왕 통치 말년(주전 425~420년, 느 13장)

느헤미야는 이제 늙었다. 그가 수산 궁을 떠날 때 적어도 40세는 되었다. 첫 번 총독직을 마칠 무렵 그는 52세쯤 되었다. 그러나 주전 425- 420년 그의 두 번째 총독 시절, 그의 나이는 65세를 넘는다. 은퇴할 나이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리를 경험했다.

II. 문제는 여전히 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성을 봉헌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때 그들은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이방인들을 배제했다. 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날'에 했다. 그 날은 성전 봉헌을 한 기념일이었다. 백성이 성결해지고, 종교적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다. 7-8년 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놓인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총독직을 부임할 때에도 같은 문제를 취급했다. 그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도력을 발휘했다.

에스라에 의해 종교부흥이 일어났다.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10장)
- ② 죄를 깨닫고(8장)
- ③ 국가적 회개운동을 했다(9장)

느헤미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복종할 것을 약속했다.

- ① 가정신성(잡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② 성수주일 (안식일에 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③ 성전세(매년 의무적으로 바침, 출 30:11-16)
- ④ 첨가된 성전 봉사(제단을 위한 나무, 곡식의 첫 열매...)
- ⑤ 첫 새끼 헌납(우선권을 하나님께)
- ⑥ 십일조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버려진 채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10장에서 약속된 것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서약했었다(10:39).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을 이미 버렸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보내셨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책망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느헤미야는 강박해진 백성들을 돌리켜야 했다.

III. 큰 사과 속에 있는 벌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인물이다. 그는 성전 골방을 맡은이로서 느헤미야의 큰 원수이며 방해꾼인 도비아와 연결이 되어(4-5절) 그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제

공해 주었다.

엘리아십은 자기 손자를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다(28절).

왜 엘리아십은 이 같은 일을 했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그의 무서운 지도력은 옛날엔 필요했을 뿐이며 지금은 새 시대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옛 세력들과 타협하고 가교를 놓고 손에 손을 잡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비아는 자기의 영향력 확장에 노력하던 중 결국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즉시 도비아를 추방하고 모든 그의 소유를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기물을 다시 정돈해 놓았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노했던 것인가?

그는 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8절).

① 느헤미야의 분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과 대조된다.

② 그때 말라기가 악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말2:2)

③ 느헤미야가 충분히 노하기까지 타협을 한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있고 있는 언약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노는 더 큰 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완전히 못한 인간은 함부로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14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담대한 일을 행하자.

IV.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엘리아십과 도비아를 처치한 후 그는 자기가 발견한 다른 악을 바르게 처리했다.

- ① 십일조 회복(10-11절)
- ② 성전에 바치는 다른 것들의 회복(12-13절)
- ③ 안식일 회복(15-22절)
- ④ 가족성결-잡혼을 금함(23-28절)

이것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기도를 첨가한다.

- ① 부패한 제사장에 대한 기도(29절)
- ② 자신을 위한 기도

-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31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우리는 그의 믿음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내로 순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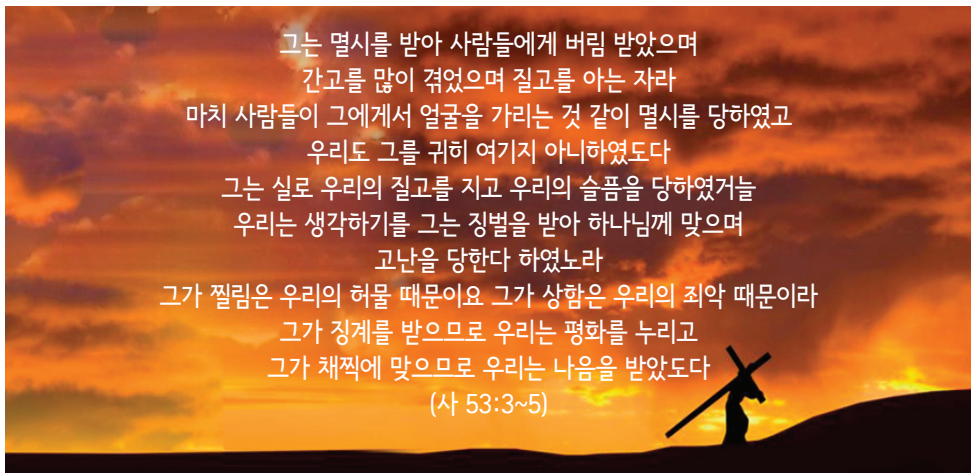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마26:39)

- ② 그는 바른 목표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이였다.
- ③ 그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 ④ 그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용기의 사람이었다.

⑤ 인내의 사람 느헤미야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느헤미야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MBC 피디수첩 반박 영상과 미방영 인터뷰 영상

지난 2월 26일 방영된 MBC 피디수첩의 편향적이고 사실 왜곡 보도에 반박하는 영상과 미방영분을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이 영상들은 16시간동안 촬영된 자료로, 한달 이상 MBC 피디수첩 관계자와 진행한 사전 인터뷰로 이날 방송에 나온 부분은 지극히 일부였으며 이마저도 박노철 목사측 주장에 초점이 맞춰진 방송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였다.
 이에 MBC 피디수첩 취재진의 동의하에 촬영

된 영상으로 방송에 나오지 않은 서울교회 사태의 진실이 이 인터뷰 안에 있다.
 유튜브(youtube)에서 'MBC PD수첩 갈라진 교회-왜곡 편파 보도와 진실', 'MBC PD수첩 갈라진 교회-미방영 인터뷰 모음'으로 검색하거나 주소
<https://youtu.be/je41IWHCK6g>
<https://www.youtube.com/watch?v=rNXTbVLkp60&feature=youtu.be>
 에서 보기 바란다.



2019 순결서약식

4월 2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신청 : 4월 7일(주)까지
 교육 부서별로

2019년 순결서약식이 4월 21일 부활절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4월 7일(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김혜언 집사(010-3923-9913,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케냐 아마니콰이어 한국 찬양사역

4월 3일(수) 도착
 4월 28일(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서울교회가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찬양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아마니콰이어는 4월 3일(수)~5월 2일(목) 체류할 예정이며 4월 28일 찬양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하고 이날 1일 홈스테이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들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수·박한옥 김광민·박민숙 문동진·김은정 윤종현1
 정복순 정승자 신문식·전희정 이영조·이영자
 김영선·권택숙 유운순 장창수·박해정 박광훈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대원 모집

1부 가브리엘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를 모집한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 누구나 성별, 연령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고, 2대, 3대까지 함께 찬양의 계대를 이어갈 성도들을 기다린다.





만민에게 전도 - 케냐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찬 케냐



사순절의 기도

생명의 신비

남태순 권사 (3교구)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캄캄하실까
 얼마나 놀라우실까
 생명의 신비
 죽음이 부활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오나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식으로
 가득찬 자아를 못박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예수님의
 양 손 양 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욕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순절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찬양교육의 불모지인 아프리카!

11년 전부터 음악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 특히 케냐의 빈민 어린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름답고 뛰어난 이 지역 음악 리더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크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이며 또한 서울교회 성도들의 꺼지지 않는 도고 기도에 힘 입은 것이라 믿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방과 후 음악학교 프로그램은 나이로비 7곳과 지방 3곳, 특수아동교육시설 1곳 등 9곳에서 매주 13개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곳의 다른 교육장소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발된 학생을 특정한 장소로 오고 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미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주가지역 아마니 음악학교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재능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주하게 될 아마니 합창단 19명 아이들은 너무나 마음 아프고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방과 후 음악훈련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의 아프리카 음악을 이끌어 갈 훌륭한 리더들로 교육하여야 하는 사명과 오직 주님께 찬양한다는 목표로 그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합창단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아마니 찬양신학교로 진학하여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훈련하여 이 지역에 음악교사로 찬양리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갖고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방과 후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 400명

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우유와 빵을 제공하고 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사이족 어린이 305명에게는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상설급식 운영체제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이 마을 어린이들은 책상이 부족하여 책상 하나에 3명의 어린이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덩치가 좀 커진 아이들은 자세가 많이 삐뚤어진 상태로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한끼의 식사인, 기다리던 점심시간엔 돌 화덕에서 만들어진 콩과 옥수수 키데리 점심을 유치원부터 고학년까지 줄을 서서 받아 모두 운동장 그늘을 찾아 한쪽바닥에 웅기종기 모여 식사를 합니다. 식당이 따로 없고 의자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 생활비도 아끼고 보내어 주신 급식 후원금 역시 아껴서 식당 하나 지어 주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 중에 하나며 기도제목입니다.

아마니콰이어가 4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 초청순회 공연을 이루어 내도록 큰 결단과 지원을 허락하여 주신 당 회와 선교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규모와 일정의 찬양사역은 어떤 교회나 기관 단체들도 쉽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가난하고 교육에 목말라하는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와 성숙한 성도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 3일(수) 오후 16:40 에미레이트항공 인천공항을 통해 24명이 입국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준비되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케냐 김낙형·오정녀 선교사





백승갑 집사 (7교구)

살롬~
지난 주말(3월 16일, 토)에 3월 스테반회 야외행사의 일환으로 스테반회 집사들과 일부 가족들이 함께 청계산 옥녀봉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새 봄이 성큼 다가선 문턱에서 간밤사이 내린 눈으로 설경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장관속에서 매우 뜻깊은 산행이 되었습니다. 새삼 계절의 변화속에서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고 깨달으며 경외함과 함께 모두 기쁜 탄성을 자아내었습니다.

스테반 회원들은 산행을 하면서도 줄곧 지난 근 4년에 걸쳐 큰 아픔과 혼란 가운데 처한 우리 서울교회 사태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조속히 바르게 회복되고, 참되게 정리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연의 서울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나가게 되길 간구했습니다.

거짓목사와 추종무리들은 아직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국가의 근간인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하며...만 1년이 넘도록 용역들 수십 명을 앞세워 교회당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추태와 탐욕에만 눈이 멀어 성스러운 교회를 허물고 부수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우리 측 성도님들 대상 각종 고소, 고발을 남

발하며 양의 탈을 쓰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수치심없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추태와 악행들을 멈추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거짓목사와 일부 추종 무리의 교활한 선동과 속임수에 한순간 빠져서 고민중에 있는 성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하여 명령된 길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되길 바라며, 이번 청계산 산행중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해주시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과 이제 막바지에 이른 교회회복이 끝까지 바르게 참되게 이루어지길 참석자 모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무 및 진료, 출장 등 일정 사정상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하고 기도로 동참, 동역해주신 모든 스테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 몸되신 우리 서울교회의 바른 회복을 위해 거듭 기도합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5일	월	삿 13-16		욘 35-42	
3월26일	화	삿 17-19		시 1-11	
3월27일	수	삿 20-21		시 12-21	
3월28일	목	룻 1-4		시 22-33	
3월29일	금	삼상 1-3		시 34-40	
3월30일	토	삼상 4-8		시 41-50	
3월31일	주일	삼상 9-12		시 51-65	

동정



■ 연주회 : 15교구 신도란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 『세계 4대 뮤지컬 모음곡 오페라 아리아』 4월 5일(금)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김치밥 과일샐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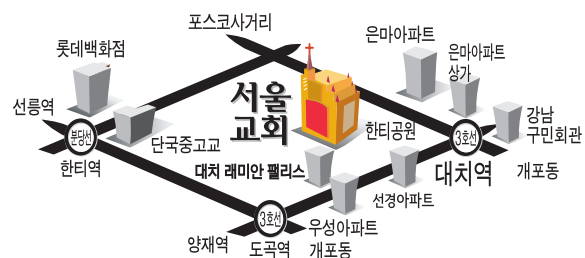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시순절 셋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불법 세력이 속히 제거 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3.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